

장애인에 대한 교회사적 고찰과 기독교윤리학적 이해

노영상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 기독교윤리학)

1. 시작하는 글
2. 고대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3. 구약의 유대사회와 장애인 문제
4. 예수 그리스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5. 초대교회의 장애인들에 대한 태도
6. 중세시대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7. 종교개혁시대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8. 근대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입장
9. 현대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견해: 장애인에 대한 주거보호가 시작됨
10. 교회사를 통해 본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입장들에 대한 반성
11. 장애인 문제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반성과 미래적 전망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hurch's past opinion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o reflect them.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1. Preface
2. Ancient People's Attitude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3. The Jewish Society of OT Times and the Matter of People with Disabilities
4. Jesus' Attitude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5. Early Church's Attitude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6. The Attitude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Middle Age
7. The Attitude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Reformation Era
8. The Attitude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Modern Period
9. The Contemporary Attitude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10. The Reflection of the Churches' Attitude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in Church History
11. The Christian Ethical Reflection of the Disable People Matter and the Future Perspective

I concluded with the following words, "All of us as well as the people of disabilities are not the beings, who can live independently one another. We are the interdependent beings, who can exist through sharing and helping one another. As well as we do not have to isolate the disable people from the people without disabilities, we do not have to emphasize only individualistic independency. As we are the interdependent beings like friends for one another, we have to take charge of mutual weakness."

Key Words: Attitude toward People with Disabled, mutual weakness

1. 시작하는 글

본 논문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지나간 태도들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하는 데에 있다. 교회사에 나타난 각 신학자들 및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필자는 그런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과거의 입장들을 정리하고, 미래의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바람직한 태도를 전망하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장애인이란 개념정의가 요청된다.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위해, UN과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인용하였다.

UN은 1981년을 장애인복지의 원년으로 삼고,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하며 ‘국제장애자의 해’(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를 선포하면서, 장애인에 대해 정의하기를, “장애인이란 선천적이거나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기 스스로 확보하는데,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disabled)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도 1997년 6월 17일에 개정된 장애복지법 개정 법률안 제1장 제2조에서 “장애인이란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주요 기관 기능장애 등, 신체적 결함과 정신지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¹⁾ 이에 우리는 장애인을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장애인과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장애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²⁾

2. 고대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BC 7,000년경의 고대인들은 질병과 장애가 사악한 영에 의해 야기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런 사악한 영을 몰아내기 위해 무당(shaman)의 존재를 이용하였다. 샤만들은 주술적 힘, 부적, 행운의 물건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BC 1,700~560년경의 고대의 근동의 바빌로니아인들은 장애가 신들의 징벌이나, 사악한 영들이 들려서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모든 질병을 죄의 결과로 보았다. 죄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정의되었는바, 수로에 침을 뱉는 것, 부정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 병든 사람을 불필요하게 접촉하는 것 등등이 포함되었다. 그들은 특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를 세계에 대한 불길한 징조로 여겼다. BC 2850년경 이집트에서는 질병과 장애를 일종의 사악한 영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생각하여, 사제 계급들은 이를 치유하는 데에 필요한 부적 등을 판매하곤 하였다.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전 그리스의 스파르타에서는 지체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는 관습이 있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적자생존의 법칙이 자연법에 걸맞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에 의해 종이 붕괴하는 것을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 그들을 제거하였던 것이다. 이후 로마사회에선 정신적인 지체가 있는 사람이나 장애인을 어릿광대나 오락의 대상으로 보았었다. 로마 사회에서 장애인을 돕는 어떤 장치가 있었음이 파악되는, 문서들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³⁾ 로마시대

1) 총회중앙상담소 장애인상담실, “장애인사역 활성화를 위한 교회교육적 제안,” 총회사회부/ 사회복지협의회,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회부, 2001), 128.

2) 하지만 이 정의는 영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 그리고 정서와 의지적 측면 등에서의 장애인 모습은 포괄하지는 않는 것 같다.

에 맹인 소년들은 거지가 되거나, 노 젓는 자로 팔리곤 하였다. 그리고 눈먼 소녀들을 매춘 부가 되었다.⁴⁾

3. 구약의 유대사회와 장애인 문제

창세기 1장 27절에는 다음의 말이 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그의 장애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바른 관계성 속에서 살기를 바라신다. 인간에겐 자유와 그에 상응하는 한계가 있으며, 하나님과 같은 창조적 힘이 있음을 이 본문은 강조하는 것이다.

구약의 레위기 21:16-24의 말씀은 고대 바빌로니아인들과 같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기타 왕하 25:7, 사 16:21, 삼하 5:6-8, 등을 참조). 그 본문은 장애인을 온전하거나 정하지 못한, 곧 흠 있는 자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구약성경은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기도 한다. 레위기 21:22은 장애인들도 성전의 성물을 먹을 수 있음을 언급한다. 그리고 신명기 27:18은 소경으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하며, 장애인들을 도와줄 것을 언급한다(기타 레 19:14, 사 29:18, 32:4, 35:5-6, 시 146:8-9, 습 3:19 등을 참조).⁵⁾ 이와 같이 구약성경은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언급을 동시에 모두 담고 있다.

4. 예수 그리스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신약성경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이전 세대와는 과격하게 다른 면이 있다. 누가복음 14:15-24은 하나님이 배설한 잔치에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초대되는 모습을 언급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공연하게 장애인들과 함께 계시곤 하였다. 예수께서는 병들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였으며, 그들을 복음증거의 대상으로 여겼다.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 그는 그 스스로 고통을 당하셨으며,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 그는 우리의 결함과 질병을 대신 지신 분이다(마 8:17). 누가복음 7:22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정체성이 장애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그들이 고침을 받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강조한다(눅 4:17-19 참조).⁶⁾ 이러한 누가복음의 본문은 이사야 29:18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이사야는 메시아의 정체성이 장애인들이 그들의 장애와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에 있음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구약의 예언과 같이, 그 스스로 장애인의 친구가 되었으며, 눈이 멀고 귀가 먹고 앓은뱅이가 된 자들을 치유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셨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애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한다(요 9:1-3, 출 20:5, 신 28:15-28). 그는 장애인을 언제나 불쌍히 여겼으며(마 14:14, 막 1:14, 눅 7:11-15), 항상 그들을 도와주고 바르게 안내하여야 함을 말하셨다(마 9:1-7, 막 2:2-5, 요 5:2-9).⁷⁾ 예수

3) Brett Webb-Mitchell, *Unexpected Guests at God's Banquet: Welcoming People with Disabilities into the Church*(New York: The Crossroad Publishing Co., 1994), 52.

4) L. Kanner, *A History of the Care and Study of the Mentally Retarded*(Springfield: Thomas, 1964).

5) Brett Webb-Mitchell, *Unexpected Guests at God's Banquet*, 53-56. 신 24:17-18, 26:18, 레 19:9-10, 23:22 등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측면의 말을 하고 있다.

6) Brett Webb-Mitchell, *Unexpected Guests at God's Banquet*, 56-58.

게서는 장애인들의 장애를 고쳐주셨으며,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여 주셨다(마 1:32-34, 8:5-7, 11:4-5, 12:9-13, 20:29-34, 눅 5:12-13, 13:10-13).

5. 초대교회의 장애인들에 대한 태도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은 기독교인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몸으로 불렀다. 그들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한 몸으로, 서로 도우며 살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었다(행 4:32-35).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한 자와 장애인들의 친구가 되신바, 그들을 치유하신 전통에 의거하여, 장애인을 돌보는 것을 그들의 의무로 생각하였다. 마태복음 25:36, 40절 등의 말씀에 따라, 장애인들을 상처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생각하였다. 그러한 질병과 장애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서, 그것들은 우리를 정화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생각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귀머거리들은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⁸⁾ 그리하여 그들은 교회의 예배나 성만찬에 참석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6. 중세시대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초대교회는 로마사회에서와 같이, 장애인을 노리게감과 심부름꾼으로 부리지 않는 않았다. 그러나 중세초기에 접어들어, 이러한 잘못된 풍습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당시의 교황 레오 10세의 저녁 테이블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놀림당하고, 함부로 대우받은 난쟁이 등의 장애인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이전 4,5 세기 경의 유럽에선, 이러한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돕는 병원들과 호스피스 운동이 일어난 바 있었다. 화비올라(Fabiola) 수도원 등, 많은 수도원들이 이런 운동에 가담하였는바, 이러한 수도원들은 주요 성당의 인근에서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한 봉사의 일을 하였던 것이다.⁹⁾

7. 종교개혁시대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그는 12살 된 정신지체를 가진 아이에 대해 말하며, 그는 단지 육체의 덩어리로서 영혼이 없는바,¹⁰⁾ 근처의 몰다우 강에 데려가 물에 빠뜨려 죽이는데 낫다고 말한 적이 있다. 물론 안할트(Anhalt)와 삭소니(Saxony)의 공작은 이런 그의 말을 이행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이런 루터의 입장은 많은 신학자들에게 비판을 받아왔다.¹¹⁾ 루터는 귀신이 바보들의 아버지이며,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사탄에 들린 것으로 비난하기도 하였다.¹²⁾ 당시

7)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 있어서의 정신적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에 대해서, 그 원인이 귀신들림에 있다고 말하였는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정신적 문제를 야기한 다양한 억압들에 대한 하나의 영적인 진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8) OSD, Ontario Institution for the Education and Instruction of the Deaf and Dumb. *Annual Reports*, Toronto: Governmental Printer, 1895, 12.

9) Brett Webb-Mitchell, *Unexpected Guests at God's Banquet*, 58-60.

10) L. Kanner, *A History of the Care and Study of the Mentally Retarded*, in Lennard J. Davis, ed., *The Disability Studies*(New York: Routledge, 1997), 94.

11) Martin Luther, *Colloquia Mensalia*(London: William DuGard, 1652).

종교개혁 시대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악한 영에 들린 사람으로 평가하곤 하였던 것이다. 존 칼빈(John Calvin)은 정신적 지체가 있는 사람들을 사탄에 들린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¹³⁾ 이러한 경향 때문에 당시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 속의 악마를 축출하기 위해, 사람들은 마법에 의지하곤 하기도 하였다. 계몽주의 이전엔, 정신적 육체적 장애인들이 일종의 마녀의 자식으로 생각되어, 마녀사냥(witch hunting)의 희생양이 되곤 하였다. 이렇게 정신적 장애의 문제에 대한 비과학적인 접근은 계몽주의가 발흥하기 전인 17세기 까지 계속되었다. 장애에 대한 의학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이런 마법에 의존하는 현상이 생긴 것이라 볼 수 있다.

8. 근대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입장

르네상스 휴머니즘, 종교개혁, 과학적 연구의 성과 등에 의해 근세에 들어, 지금까지 미신과 편견에 의해 방임되어 온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 근대 시대에는 장애의 문제를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해하려 하였으며, 의사들과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돌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18세기 이후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7세기까지 장애인에 대한 화형이 계속되었는바, 일반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견지하였던 것이다.¹⁴⁾

17세기 초에는 정신병자들을 격리 수용하는 정신병원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물론 그곳에는 정신병자들만이 수용된 것은 아니며 거지, 알코올 중독자, 바보, 장애인 등도 함께 수용되었다.¹⁵⁾ 이런 기관들은 이전 3-4세기에 세워졌던 장애인들을 위한 호스피스 시설이나 수도원과는 다르게, 격리가 목적이었다. 18세기 초 장애가 있는 아기의 유기에 대처하는 빈첸티안(the Vincentians) 같은 기관이 세워져, 아기를 원치 아니하는 부모들이 아기를 문 앞에 두고 가면, 이들을 거두어 양육하였다. 근대시대에 수공업자들의 길드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축적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였는바, 교회의 돕는 일들이 이들 기관으로 많이 이양되기도 하였다. 1790년대 영국의 요크(York)시에 살았던 윌리엄 튜크(William Tuke)는 정신적 장애자들을 위한 일종의 요양센터를 세웠다. 그것은 오늘의 정신병원과 같은 곳이었다. 장애인들을 교육하려는 노력은 16세기 스페인에서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먼저는 청각장애자, 그리고 시각장애자, 다음으로 정신지체자 등의 순으로 교육에 대한 체계화가 이루어졌다.¹⁶⁾

9. 현대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견해: 장애인에 대한 주거보호가 시작됨

근대 이후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인격존중운동의 본격화되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본적 인권을 가진 인격체로서 인정하려는 노력들이 점점 확산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생존권, 발달권, 교육권이 보장되고, 이들의 복지적 교육적 대책에 대해서 사회적으

12) Barr, *Mental Defectives: Their History, Treatment, and Training*(Philadelphia: Blakiston, 1913), 26, in Lennard J. Davis, ed., *The Disability Studies*, 94.

13) Lennard J. Davis, ed., *The Disability Studies*, 94.

14) 한남희. “장애인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미간행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2001), 10-11.

15) Lennard J. Davis, ed., *The Disability Studies*, 99.

16) Lennard J. Davis, ed., *The Disability Studies*, 100ff.

로나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이 삶에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조처하며,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반 요건들을 갖추는 데에 노력함으로써, 적극적인 의미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힘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형편이다.¹⁷⁾ 19세기에 스위스의 개신교신자 요한 구겐불(Johann Guggenbuhl)은 스위스의 아벤트베르크(Aabendberg)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보호 시설을 세웠는데, 이것이 장애인을 격리가 아닌 보호의 차원에서 세운 시설의 효시가 되었다.¹⁸⁾

장애인을 위한 20세기 현대교회의 노력들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세계교회협의회(WCC)의 노력이다. 1971년 세계교회협의회는 특별위원회를 루뱅(Louvain)에 회집하여 “교회의 일치와 인류의 일치”(The Unity of Church and the Unity of Mankind)라는 주제 하에 장애자의 문제를 다루었다. 1975년에 있는 세계교회협의회 나이로비(Nairobi) 제5차 총회는 “장애자와 하나님의 가족의 온전함”(The Handicapped and the Wholeness of the Family of God)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세계교회협의회는 장애인 문제를 다루는 특별위원회(Task Force) 팀을 만들어, 여러 번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983년 세계교회협의회 밴쿠버(Vancouver) 제6차 총회에선 “공동체 안에서의 치유와 나눔의 삶”(Healing and Sharing Life in Community), “공동체 안에서의 학습”(Learning in Community), “분열된 세계에서의 증거”(Witnessing in a Divided World), “참여를 향한 움직임”(Moving Toward Participation) 등의 그룹에서 장애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 그룹들에선 장애인의 예배 참여 문제, 장애인들의 교회공동체 안으로의 통합, 장애인에 관해 교회공동체를 이해시키는 교육과 장애인 자신들을 위한 교회교육의 필요성 강조, 장애인들이 안수 받은 교역자가 되게 하는 등의 장애인들을 교회 일에 참여시키기, 교회 내의 장애인들의 통합과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들의 제거,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에 있는 사람들을 재활케 하는 노력, 신학대학 교육과정 중에 장애자를 이해하는 교과목을 삽입시키는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¹⁹⁾

10. 교회사를 통해 본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입장들에 대한 반성

필자는 앞에서 장애인에 대한 교회사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들이 상당히 부족하여 논문을 쓰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강의 윤곽은 잡은 것 같다. 장애인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며, 필자는 다음의 몇 가지의 주요한 사항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1) 지난 역사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애인들에 대한 입장은 놀라운 것이었다. 당대의 일반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입장은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구약성경에 있어서도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에 혼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정말 혁명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장애인에 대한 혁신적인 태도를 보여주신 것으로, 오늘의 시대의 장애인에 대한 견해는 그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17) 한남희. “장애인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11.

18) Brett Webb-Mitchell, *Unexpected Guests at God's Banquet*, 66-68.

19) 맹용길, 『생명치료윤리』(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7), 356-362. 이러한 내용들은 World Council of Churches, *Education Newsletter*, 1980-1985에서 찾을 수 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혁신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후 천 오백년을 넘게 장애인에 대한 편협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이런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의 어려움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이 쉬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신약성경의 시대 이후,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빈 등을 포함한 주요 신학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정말 실망적인 점이 없지 않았다.

3) 장애인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 과학기술이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과격한 전환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시작된 근대사회에 와서 이루어졌다. 이전 시대엔 정신지체가 있는 사람들을 일종의 귀신에 들린 사람으로 간주하여, 그들을 종교적으로 소외시키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의학의 발전을 통해, 정신지체 및 귀머거리, 소경 등의 장애가 일종의 신체적 결함에서 야기된 질병임이 파악하였으며, 이에 장애인에 대한 미신적인 태도들이 많이 수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애인들을 접근할 때,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

4) 교회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입장들을 정리하여 본 결과, 처음에는 장애인을 격리수용하는 입장에서 장애인을 보호하는 차원으로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 장애인 문제에 있어 우리는 그들을 격리하는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그들을 사회에 참여시키고 통합(integration)하는 차원으로의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수용적 자세 요구되며, 장애인 스스로도 사회참여에 대한 의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요청되는 것이다.

5)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애인들에 대한 태도에서,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들을 우리는 지금도 많이 찾아낼 수 있다. 이에 신약성경의 장애인에 대한 본문들의 새롭게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누가복음 14:12-14의 말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새로운 영적 시각에서 대조시키면서, 장애인을 비장애인을 대치하여 천국잔치에 초청받는 손님으로 비유하고 있다. 장애 자체가 그들에게 영적인 탁월성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는 그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초대에 민감하도록 만든다는 내용의 본문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영적 결핍을 지적하는 기능을 한다. 하나님은 장애인들의 장애를 부정적인 사야에서 바라보시지 않으며, 오히려 영적인 풍성함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됨을 우리에게 언급하셨다.²⁰⁾ 이에 우리는 장애인을 불편함을 야기하며 보호의 대상만 되는 사람들로 보아서는 안 되며, 장애인이란 존재 자체가 우리 비장애인에 주는 영적이며 도덕적인 의미를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6) 장애인은 두 종류의 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는바, 육체적 손상을 갖는 장애인과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장애인이다. 이에 있어 기독교회사에 더 논쟁이 되었던 장애인 문제는 정신적 질병과 지체가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앞의 고찰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그들을 귀신들린 사람으로 보아, 축귀를 통해서만 그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근대 이전 한 동안을 지배하였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를 귀신의 영향으로 보기에 앞서, 그 질환을 야기한 많은 억압 및 여타의 요인들을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정신분석 및 정신치유의 의술, 뇌의학 등의 발전을 통해 우리는 정신질환의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들에게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한 광범위한 요인들이 과학적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그러한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 가

20) 나길수. “장애인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교회의 목회적 과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기독교신학대학원, 2000), 27.

정적 환경 요인들에 대한 폭넓은 고찰을 통해 이런 사람들의 고통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일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정신질환은 그 자신의 죄성과 더러움에서 야기되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자신도 어찌 할 수 없는, 또한 한 인간의 힘으로는 막기 어려운, 외부적인 환경의 힘이 그를 그러한 상태로 몰아간 것으로, 성경에서도 지적된바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귀신의 힘에 의해 야기된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귀신이라는 영적인 실체에 대한 해석에 주목하여,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오는 이런 귀신들림의 정체를 파악을 위해 우리의 지적이며 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과학적인 노력을 통해, 이런 귀신들림의 모든 정체가 파악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바, 정신분석을 통해서도 언제나 괄호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귀신의 영향력이 존재함을 우리는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11. 장애인 문제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반성과 미래적 전망

오늘날에 있어 장애인 권익을 위한 운동 중 주목할만한 것은 장애인권리운동(the disability rights movement)이라는 것이다. 이 운동은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 즈음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운동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 운동이 기독교의 자선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충돌하였다는 데에 있다. 이 운동은 18, 19세기의 장애인에 대한 입장과는 달리, 장애인을 자선(charity)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보지 않는다. 그들은 의학적이며 경제적 돌봄의 모델을 가지고 장애인을 접근하기보다는, 독립생활(independent living)에의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장애인의 실재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천적 실재의 모델에 의해 장애인의 문제를 접근하려 한다. 그들을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자선의 돌봄의 이데올로기 하에선, 장애인에 대한 많은 격리와 관리적인 보호와 영속적인 유아화가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다.²¹⁾ 장애인권리운동은 그들 자신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며 사회에 통합되는 데에 필요한 자원에 그들이 접근(access)하기 쉽게 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 같은 장애인권리운동은 정치적으로 시민권운동과 결합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법률화하는 일에 연결되었으며, 당시 문화적인 변혁의 일이 추진되었다.²²⁾ 이 같은 경향은 1970년대의, 장애인들을 비장애인들과 함께 교육하는 통합(integration)으로서의 교육적 접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에 이르러, 장애인들도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는 자로서, 장애인을 하나의 억압당하는 소수로(oppressed minority) 보며, 당당히 사회중심에 참여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장애를 가진 미국인 법령(the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ADA)으로 열매 맺기도 하였다.²³⁾ 이러한 장애인권리운동의 주장과 같이, 우리는 장애인을 자선의 대상으로만 보려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장애인에 대한 실천적이며 윤리적 접근은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 이전의 질문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어린 아이를 양육하며 돌보는 것을 봉사라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한 양육을 마땅한 우리의 일로 받아들인다. 그 아기들은

21) Nancy L. Eiesland and Don E. Saliers, ed. *Human Disability and the Service of God: Reassessing Religious Practice*(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201-218.

22) Nancy L. Eiesland and Don E. Saliers, ed. *Human Disability and the Service of God*, 201ff.

23) Brett Webb-Mitchell, *Dancing with Disability: Opening the Church to All God's Children*(Cleveland: United Church Press, 1996), 128.

자신이 자신을 돌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돌보는 것이다. 이전 장애인들을 자신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하며, 국가나 사회가 그들에게 독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줄 것을 강조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들의 노력은 1990년대에 하나의 역효과를 산출하기도 하였다.²⁴⁾ 장애인들의 정부에 대한 의존(dependence)감이 더해졌다는 것이다. 이전 장애인들은 건물과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그들의 개인적인 입장을 배려한 교육 등 그들이 한 시민으로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는 사회적 장치들에 대한 소비자적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을 향한 장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의 어떤 도움이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닌바, 비장애인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더욱 필요한 자들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장애인을 위시한 우리 인간 모두는 서로 독립(independence)하여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서로 돕고 서로간의 나눔을 통해 존재할 수 있는 상호의존(interdependence)적인 존재인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들을 비장애자의 사회로부터 격리(isolation)하여 해서는 안 되며, 동시 그들의 개인주의적 독립만의 강조를 거리를 둔 채 인정하려해서만도 안 된다. 우리는 서로 친구(friend)와 같은²⁵⁾ 상호의존적 존재들로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함은 장애는 장애인의 비장애인에 대한 도전정신에 의해 극복되는 것이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의존과 사랑이라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속에서 극복될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 도와줄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장애인들을 도움에서 그리고 장애인으로부터 무언가 배우는 점이 있으며 도움을 받을 점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24) Brett Webb-Mitchell, *Dancing with Disability: Opening the Church to All God's Children*(Cleveland: United Church Press, 1996), 128-129.

25) Roy McCloughry & Wayne Morris. *Making a World of Difference: Christian Reflections on Disability*.(London: SPCK, 2002), 제8장 돌봄에서 우정으로(From Care To Friendship)를 참조하십시오.

참고문헌

- 안교성. 『장애인을 잃어버린 교회』. 서울: 흥성사, 2003.
- 맹용길. 『생명의료윤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7.
- 총회사회부/ 사회복지협의회,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회부, 2001.
- 한광수. “한국 장애인선교의 문제점과 대안 고찰.”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대학원, 2001.
- 한남희. “장애인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2001.
- Bishop, Marilyn E. *Religion and Disability: Essays in Scripture, Theology and Ethics*. Kansas City: Sheed & Ward, 1995.
- Black, Kathy. *A Healing Homiletics: Preaching and Disability*.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 Block, Jennie Weiss. *Copious Hosting: A Theology of Acces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New York: Continnum, 2002.
- Davis, Lennard J., ed. *The Disability Studies*. New York: Routledge, 1997.
- Dellassoudas, G. "Church and Social Integration of Disabled People," *Greek Orthodox Theological Review*, vol. 45, nos. 1-4 (2000), 597-627.
- Eiesland, Nancy L. *The Disabled God: Toward a Liberatory Theology of Disability*.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 Eiesland, Nancy L. and Saliers, Don E., ed. *Human Disability and the Service of God: Reassessing Religious Practic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 Eugene, Bayingana. "The Church's Evangelizing Mission to the Mentally Handicapped," *AFER*, vol. 41, no. 1 (2001), 17-30.
- Hauerwas Stanley. *Suffering Presence: Theological Reflections on Medicine, the Mentally Handicapped, and the Church*.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6.
- Hauerwas Stanley. *Truthfulness and Tragedy: Further Investigations into Christian Ethic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7.
- Kanner, L. *A History of the Care and Study of the Mentally Retarded*. Springfield: Thomas, 1964.
- McCloughry, Roy & Morris, Wayne. *Making a World of Difference: Christian Reflections on Disability*. London: SPCK, 2002.
- Webb-Mitchell, Brett. *Unexpected Guests at God's Banquet: Welcoming People with Disabilities into the Church*. New York: The Crossroad Publishing Co., 1994.
- Webb-Mitchell, Brett. *Dancing with Disability: Opening the Church to All God's Children*. Cleveland: United Church Press, 1996.